

고령운전자 500만 시대...광주·전남 대책 서둘러야

광주·전남 2023년 고령자 교통사고 3400여건...사망자도 증가세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516만명...5년새 150만 ↑

전국 고령운전자(65세 이상) 수가 역대 최다인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516만 6386명에 달했다. 고령운전자 수는 2020년 368만명, 2021년 401

만명, 2022년 438만명, 2023년 474만명 등 증가하다 지난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0년 720명에서 2024년 76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2020년 3081명에

서 2024년 2521명으로 18.1%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761명)가 전체(2521명)의 37.1%를 차지했다. 보행자(920명·36.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화물차(594명·23.5%), 이륜차(361명·14.3%)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 2021년 1032건, 2022년 1089건, 2023년 1303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 또한 2020년 1950건, 2021년 1905건, 2022년 1903건,

2023년 2159건 등으로 급증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의 사망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8명, 2022년 17명, 2023년 9명 등이었으며 전남은 2020년 82명, 2021년 87명, 2022년 71명, 2023년 82명 등이었다. 지난달 17일 해남군 삼산면의 한 도로에서는 1t 화물차를 몰던 70대 남성이 갓길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8일에는 나주시 봉황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으며, 같은 달 23일에는 여수시 봉산동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

대 여성이 70대가 몰던 SUV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일각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령운전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전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27.18%로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의 67.0%가 고령자일 만큼 교통사고 전반에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어르신 대상 안전 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드론으로 산불 감시 건조한 날씨에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광주 북구 생용동 산불 감시초소에서 북구청 드론운영팀 직원들이 이동 드론지상관제차량에서 드론을 이용해 산불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국 교실 내 5·18 교육 활성화' 나선다

광주교육청, 교육자료 개발

광주시교육청은 8일 새로 제작한 5·18 계기 교육 자료를 전국 일선 학교에 알리는 등 교실 내 5·18 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올해 1월 초등 교원 4명·중등 교원 4명으로 현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5·18 계기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OX 퀴즈, 카드 짝맞추기, 활동지 등을 활용해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수준에 맞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직 5·18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 저학년층을 대상으로는 '오늘은 5월 18일'이라는 책과 함께 5·18 정신을 내면화하는

'읽기 교육자료', 5·18 핵심 가치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의식을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가치 중심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또 5·18의 역사적 배경과 10일간의 항쟁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역사적 사실 이해 교육자료'도 만들었다. 중학생 대상 자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러보고 만들어진 배경 등을 소개하며, 5·18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대상 자료는 5·18 당시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성 자동차 부품 공장서 50대, 기계에 끼여 사망

장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전남 공장을 둘러보고 안전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장성군 황룡면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는 이날 협력업체의 요청을 받고 1300t 기계에 들어가 사출 금형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사출 기계 안에 누워있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공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캐스퍼 그릴 등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 학교 전기료 부담 증가율 '전국 2위'

5년간 7260억으로 71.9% 급증 재정 악화·학교운영비 부담 가중

최근 5년 사이 광주지역 학교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총 72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4223억원에 비해 71.9% 급증한 수치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 124억원에서 2024년 227억원으로 83.6% 증가해 제주(85.4%) 다음

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남도교육청도 227억원(2020년)에서 366억원(2024년)으로 61.5% 증가해 전국 평균(71.9%)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 전체 예산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었다.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1%에서 3.60%(2021년), 3.65%(2022년), 4.16%(2023년), 4.28%(2024년)으로 늘어났다. 전남도교육청도 3.64%(2020년), 3.60%(2021년), 3.83%(2022년), 4.39%(2023년), 4.41%(2024년) 등으로 전기요금 비중이 늘었다. 교육부는 유가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사의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자료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0년 kWh(킬로와트시)당 103.99원에서 2024년 143.0원으로 뛰었다. 그에 비해 교육용 전기 연간 판매량은 증가세로, 2020년 2만 996호에 총 7515GWh(기가와트시)에서 2024년 2만 705호에 9433GWh로 2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학교 재정 악화, 교육활동 위축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허위문자 발송 혐의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 전후로 상대방 후보자

에 대한 비방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차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자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